numbers
vol. 239

가정의 달 리포트 2 : 한국인의 부부싸움

부부싸움, 원인도 '남편' 때문, 화해도 '남편'이 먼저!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① 스승의 날 관련 국민 인식
② 세계 종교 인구 예측

2024. 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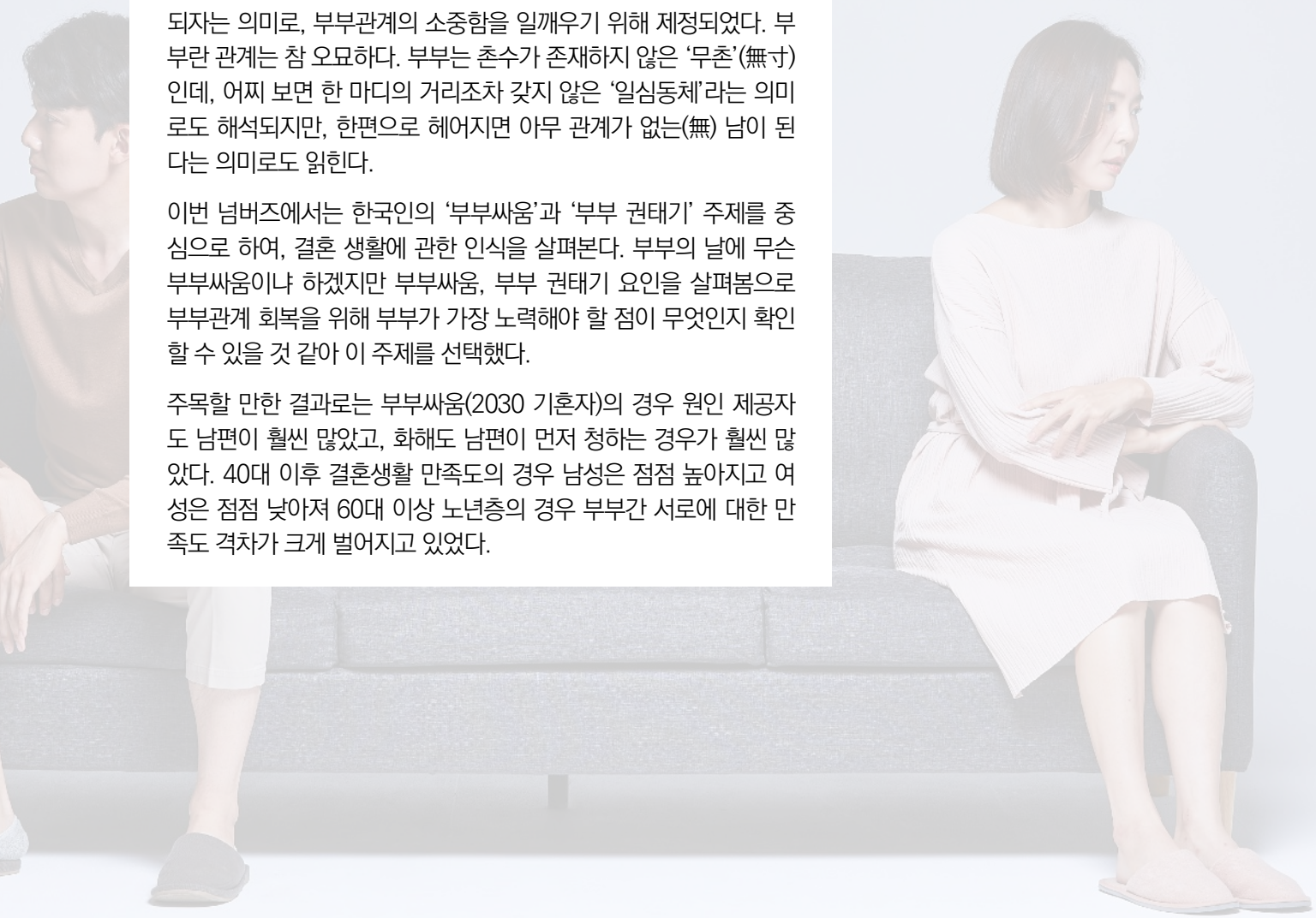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부부싸움,
원인도 '남편' 때문, 화해도 '남편'이 먼저!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되자는 의미로,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되었다. 부부란 관계는 참 오묘하다. 부부는 촌수가 존재하지 않은 '무촌'(無寸)인데, 어찌 보면 한 마디의 거리조차 갖지 않은 '일심동체'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지만, 한편으로 헤어지면 아무 관계가 없는(無) 남이 된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번 넘버즈에서는 한국인의 '부부싸움'과 '부부 권태기'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결혼 생활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다. 부부의 날에 무슨 부부싸움이냐 하겠지만 부부싸움, 부부 권태기 요인을 살펴봄으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주제를 선택했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부부싸움(2030 기혼자)의 경우 원인 제공자도 남편이 훨씬 많았고, 화해도 남편이 먼저 청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40대 이후 결혼생활 만족도의 경우 남성은 점점 높아지고 여성은 점점 낮아져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 부부간 서로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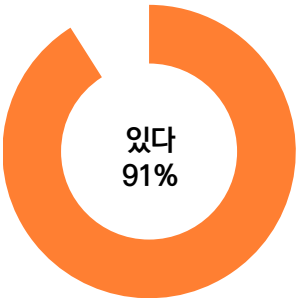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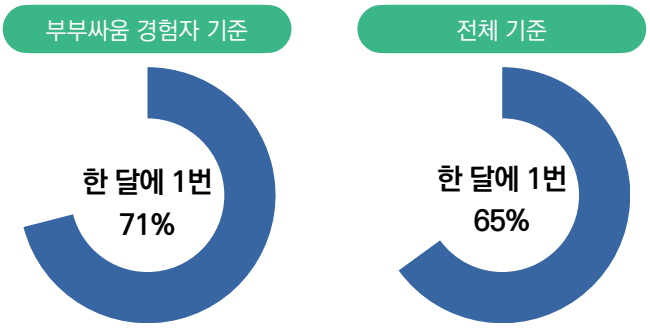
01 [부부싸움 실태]
2030 기혼자 3쌍 중 2쌍, 한 달에 1번 싸워!

- 최근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20~30대 기혼자를 대상으로 '부부싸움' 관련 흥미로운 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는데 이를 살펴본다. 결혼한 2030세대의 부부싸움 경험은 어느 정도일까? 응답자 대다수(91%)가 부부싸움 경험이 있었고, 전체 부부 3쌍 중 2쌍(65%)은 '한 달에 1번' 정도 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부싸움 경험 (2030 기혼자)



[그림] 부부싸움 빈도 (2030 기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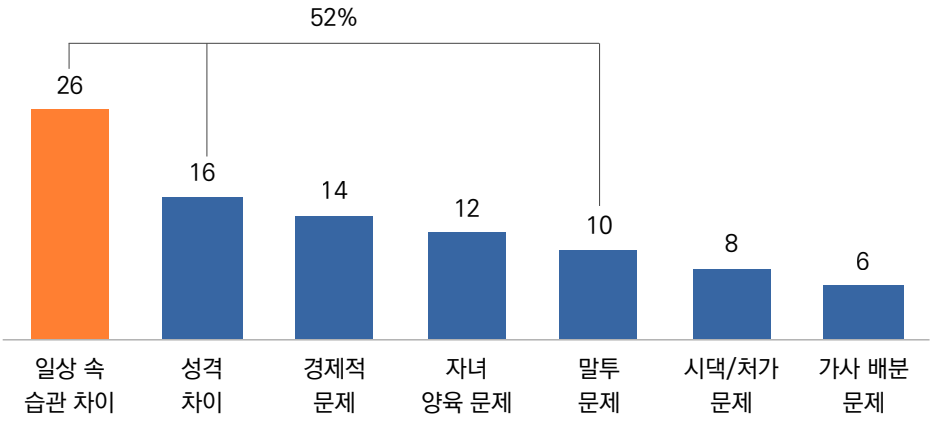


※출처 : 파이낸셜뉴스, 기혼남녀 72.8% "부부싸움 원인 제공자는 남편"..남성도 "남편 탓", 2024.01.08. (https://www.fnnews.com/news/202401080950562053)
※원출처 : 듀오, '부부싸움 인식 조사', 2024.01. (20,30대 기혼남녀 500명, 온라인조사, 2023.12.05.~12.06.)

부부싸움 하는 이유, '일상 속 습관 차이' 가장 많아!

- 부부싸움을 하는 주된 이유를 물은 결과, '일상 속 습관 차이'가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성격 차이' 16%, '경제적 문제' 14%, '자녀 양육 문제' 12% 등의 순이었다. 습관/성격 차이, 말투 등이 전체 응답에서 절반(52%)으로 나타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음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부부싸움의 주요 원인 (2030 부부싸움 경험자,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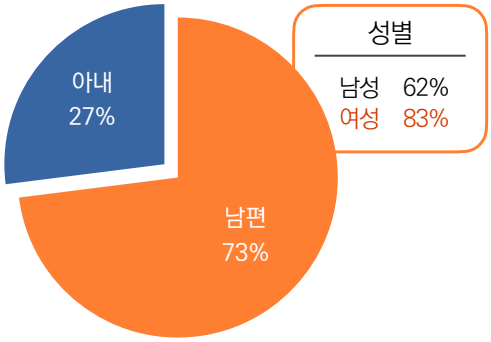


※출처 : 파이낸셜뉴스, 기혼남녀 72.8% "부부싸움 원인 제공자는 남편"..남성도 "남편 탓", 2024.01.08. (https://www.fnnews.com/news/202401080950562053)
※원출처 : 듀오, '부부싸움 인식 조사', 2024.01. (20,30대 기혼남녀 500명, 온라인조사, 2023.12.05.~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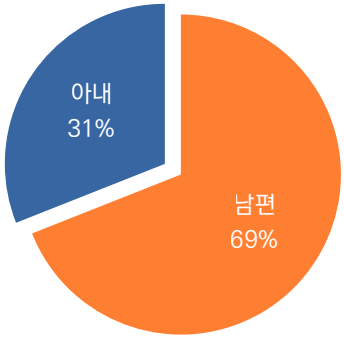
부부싸움, 원인도 '남편' 때문, 화해도 '남편'이 먼저!

- 부부싸움의 원인 제공자를 물었더니 '남편'이 73%로 '아내' 27%보다 훨씬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83%가 부부싸움의 원인을 남편에게 돌렸다.
- 부부싸움 후 화해 주도자 역시 남편(69%)이 아내(31%)보다 적극적이어서, 부부싸움의 원인도 남편으로부터 시작, 화해도 남편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부싸움 원인 제공자 (2030 부부싸움 경험자)



[그림] 부부싸움 후 먼저 화해 주도자 (2030 부부싸움 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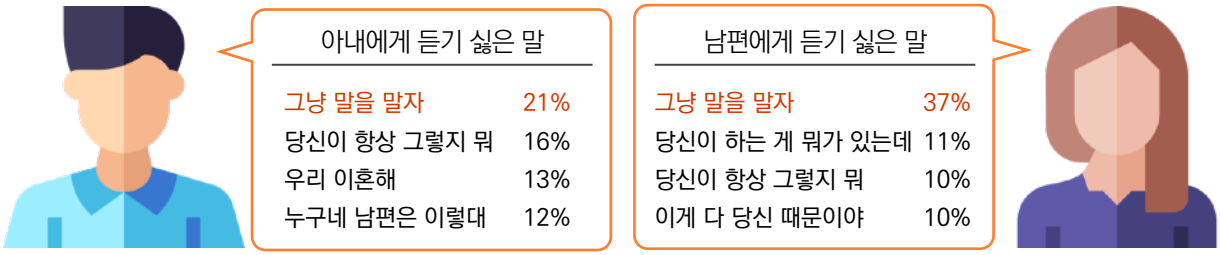


※출처 : 파이낸셜뉴스, 기혼남녀 72.8% "부부싸움 원인 제공자는 남편"..남성도 "남편 탓", 2024.01.08. (https://www.fnnews.com/news/202401080950562053)
※원출처 : 듀오, '부부싸움 인식 조사', 2024.01. (20,30대 기혼남녀 500명, 온라인조사, 2023.12.05.~12.06.)

부부싸움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그냥 말을 말자'!

- 이번에는 부부싸움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그냥 말을 말자'를 가장 높게 꼽았다. 대화를 중단하고, 무시/회피하는 태도를 부부 사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그 외에 남성은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16%, '우리 이혼해' 13% 등의 순으로, 여성은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 11%,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10% 등이 듣기 싫다고 응답했다.

[그림]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2030 기혼자, 상위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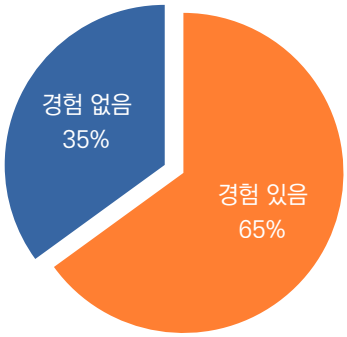


※출처 : 파이낸셜뉴스, 기혼남녀 72.8% "부부싸움 원인 제공자는 남편"..남성도 "남편 탓", 2024.01.08. (https://www.fnnews.com/news/202401080950562053)
※원출처 : 듀오, '부부싸움 인식 조사', 2024.01. (20,30대 기혼남녀 500명, 온라인조사, 2023.12.05.~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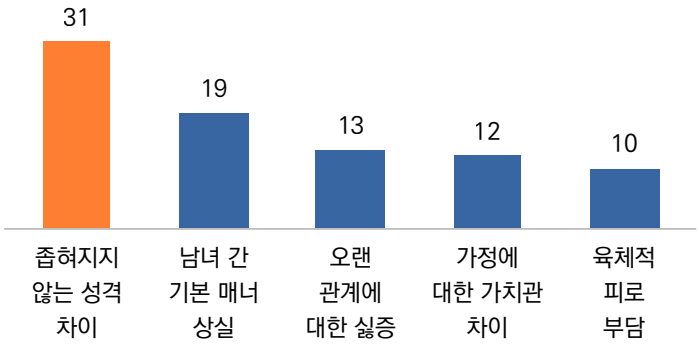
02 [부부 권태기 인식]
2030 기혼자 3명 중 2명, 권태기 경험 있어!

- 2030 젊은 부부들은 권태기를 겪을까? 부부 권태기 경험을 물은 결과, 무려 2030 기혼자 3명 중 2명(65%)이 '경험 있다'고 응답했다.
- 권태기 경험자들에게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좁혀지지 않는 성격 차이'라는 응답이 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녀 간 기본 매너 상실' 19%, '오랜 관계에 대한 싫증' 13% 등의 순이었다. 1순위로 응답한 '성격 차이'는 결국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부부 권태기 경험 (2030 기혼자)



[그림] 권태기 주요 원인 (2030 권태기 경험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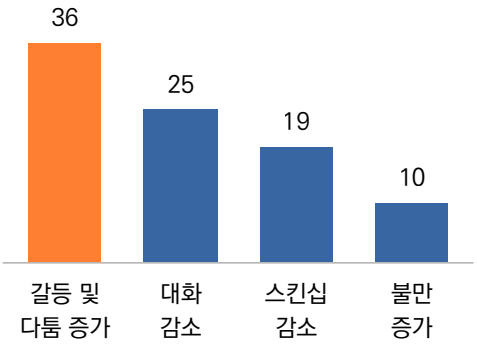


※출처 : 중앙일보, "보기만 해도 짜증"…5명중 3명 '부부 권태기 경험', 2024.04.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2832#home)
※원출처 : 듀오, '부부싸움 인식 조사', 2024.01. (20,30대 기혼남녀 500명, 온라인조사, 2023.12.05.~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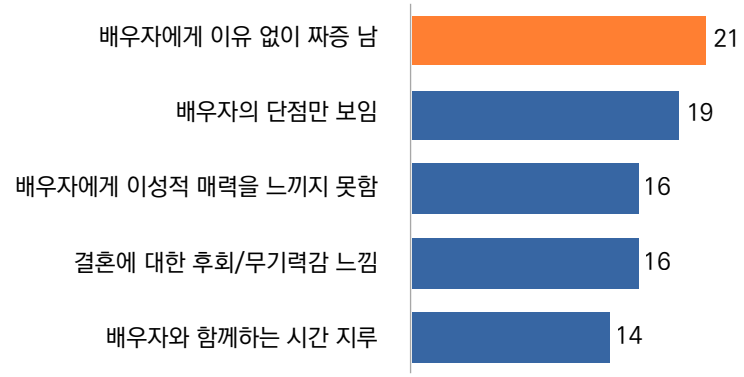
권태기의 징조, '갈등, 다툼' 늘고, '대화' 감소!

- 2030 기혼자들에게 권태기를 의심할 수 있는 배우자의 행동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갈등 및 다툼 증가'(3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화 감소' 25%, '스킨십 감소' 19% 등의 순이었다. 갈등 및 다툼은 대화 감소의 원인이 되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 권태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배우자에게 이유 없이 짜증 남' 21%, '배우자의 단점만 보임' 19%, '배우자에게 이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함' 16%, '결혼에 대한 후회/무기력감 느낌' 16% 등이 고루 응답됐다.

[그림] 권태기를 의심할 수 있는 배우자의 행동 (2030 기혼자, 상위 4위, %)



[그림] 권태기의 대표적 증상 (2030 기혼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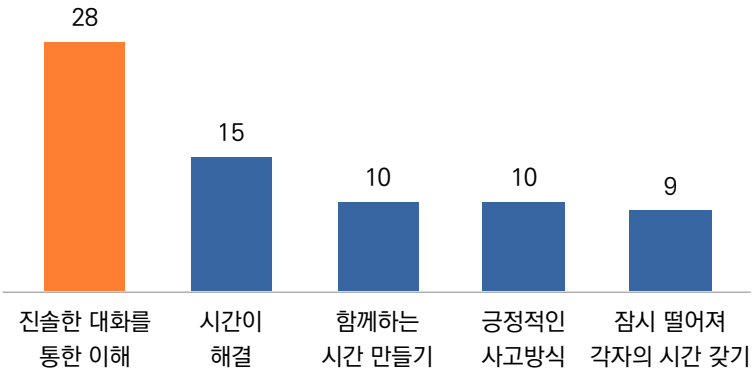


※출처 : 중앙일보, "보기만 해도 짜증"…5명중 3명 '부부 권태기 경험', 2024.04.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2832#home)
※원출처 : 듀오, '부부싸움 인식 조사', 2024.01. (20,30대 기혼남녀 500명, 온라인조사, 2023.12.05.~12.06.)

가장 좋은 권태기 극복 방법, '진솔한 대화'!

- 그렇다면 어떻게 권태기를 극복해야 할까? 권태기 극복 방법을 물은 결과, '진솔한 대화를 통한 이해'(2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시간이 해결' 15%,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10%, '긍정적인 사고방식' 10% 등의 순이었다.
- '진솔한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등 부부간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시간이 해결', '잠시 떨어져 각자의 시간 갖기'보다 높게 나온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권태기 극복 방법 (2030 기혼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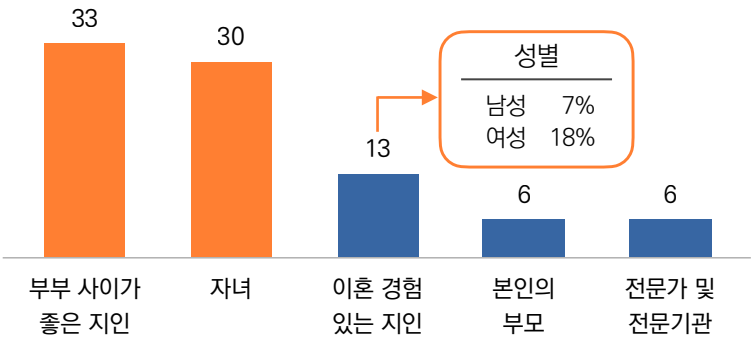


※출처 : 중앙일보, "보기만 해도 짜증"…5명중 3명 '부부 권태기 경험', 2024.04.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2832#home)
※원출처 : 듀오, '부부싸움 인식 조사', 2024.01. (20,30대 기혼남녀 500명, 온라인조사, 2023.12.05.~12.06.)

권태기 극복에 도움 되는 사람, '부부 사이 좋은 지인'과 '자녀'!

- 부부 권태기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부부 사이가 좋은 지인'(33%)과 '자녀'(30%)가 가장 높았다. 이는 '본인의 부모'(6%)나 '전문가 및 전문기관'(6%)보다도 훨씬 높았다. 즉 권태기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의 '롤모델'과 사랑하는 '자녀'인 셈이다.
- 여성의 경우 권태기 극복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이혼 경험 있는 지인'을 남성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꼽은 점이 눈에 띈다.

[그림] 권태기 극복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 (2030 기혼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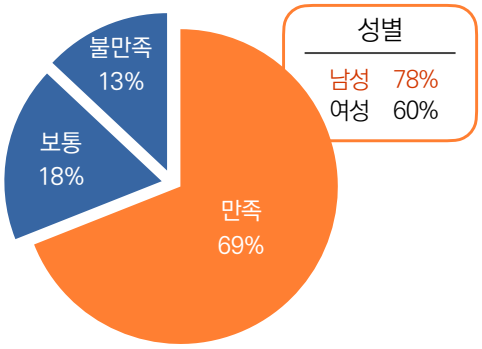


※출처 : 중앙일보, "보기만 해도 짜증"…5명중 3명 '부부 권태기 경험', 2024.04.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2832#home)
※원출처 : 듀오, '부부싸움 인식 조사', 2024.01. (20,30대 기혼남녀 500명, 온라인조사, 2023.12.05.~12.06.)

03 [결혼생활 만족도]
결혼생활 만족도, 여성이 남성 대비 낮아!

- 최근 우리 국민의 '2024 결혼 인식 조사'(한국리서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해당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기혼 국민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살펴본다. 먼저 우리나라 기혼자들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보면 '만족' 69%, '보통' 18%, '불만족' 13%로 기혼남녀 10명 중 7명은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78%)보다 여성(60%)이 더 낮았다.

[그림] 결혼생활 만족도* (기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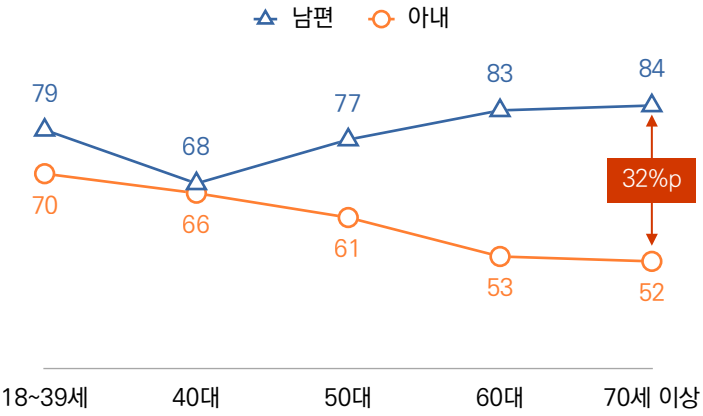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결혼 인식 조사] 결혼생활 만족도 조사', 2024.05.08.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3.22.~03.25.)
*11점 척도로 만족 : 6~10점, 보통 : 5점, 불만족 : 0~4점

나이 들수록 부부간 서로에 대한 만족도 격차 크게 벌어져!

- 이번에는 성·연령별로 결혼생활 만족도를 살펴본다. 남성의 경우 '30대 이하' 79%에서 '40대'에 68%로 떨어지며 가장 낮지만, 그 후 점점 높아져 '60대 이상'부터는 80%대의 높은 결혼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여성은 '30대 이하' 젊은층에서 가장 높고, 점차 나이가 들수록 결혼 만족도가 낮아져 '60대' 53%, '70세 이상' 52%까지 떨어져 부부간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 부부간 서로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30%p 이상 크게 벌어진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성·연령별 결혼생활 만족도* (기혼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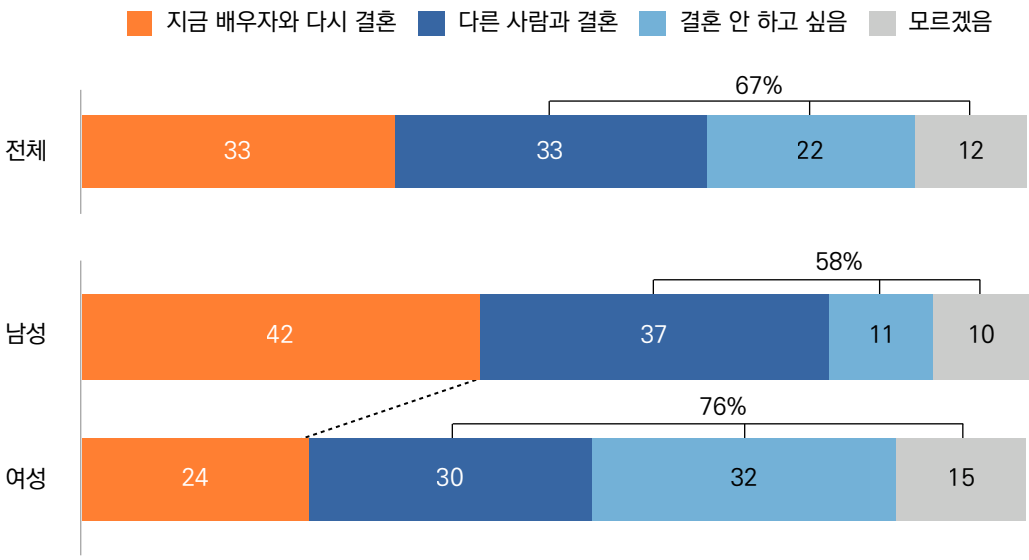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결혼 인식 조사] 결혼생활 만족도 조사', 2024.05.08.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3.22.~03.25.)
*11점 척도 중 만족 : 6~10점 비율

기혼 여성 4명 중 3명,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 안 해!

- '다시 태어난다면, 현 배우자와 결혼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 33%,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 33%, '결혼을 안 하고 싶다' 22% 등으로 나타났다. 기혼자 3명 중 1명만이 현 배우자를 선택한 셈이다.
- 여성의 경우 24%만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고 응답해 기혼 여성 4명 중 3명(76%)은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림] 다시 태어난다면, 현 배우자와 결혼 여부 (기혼자, 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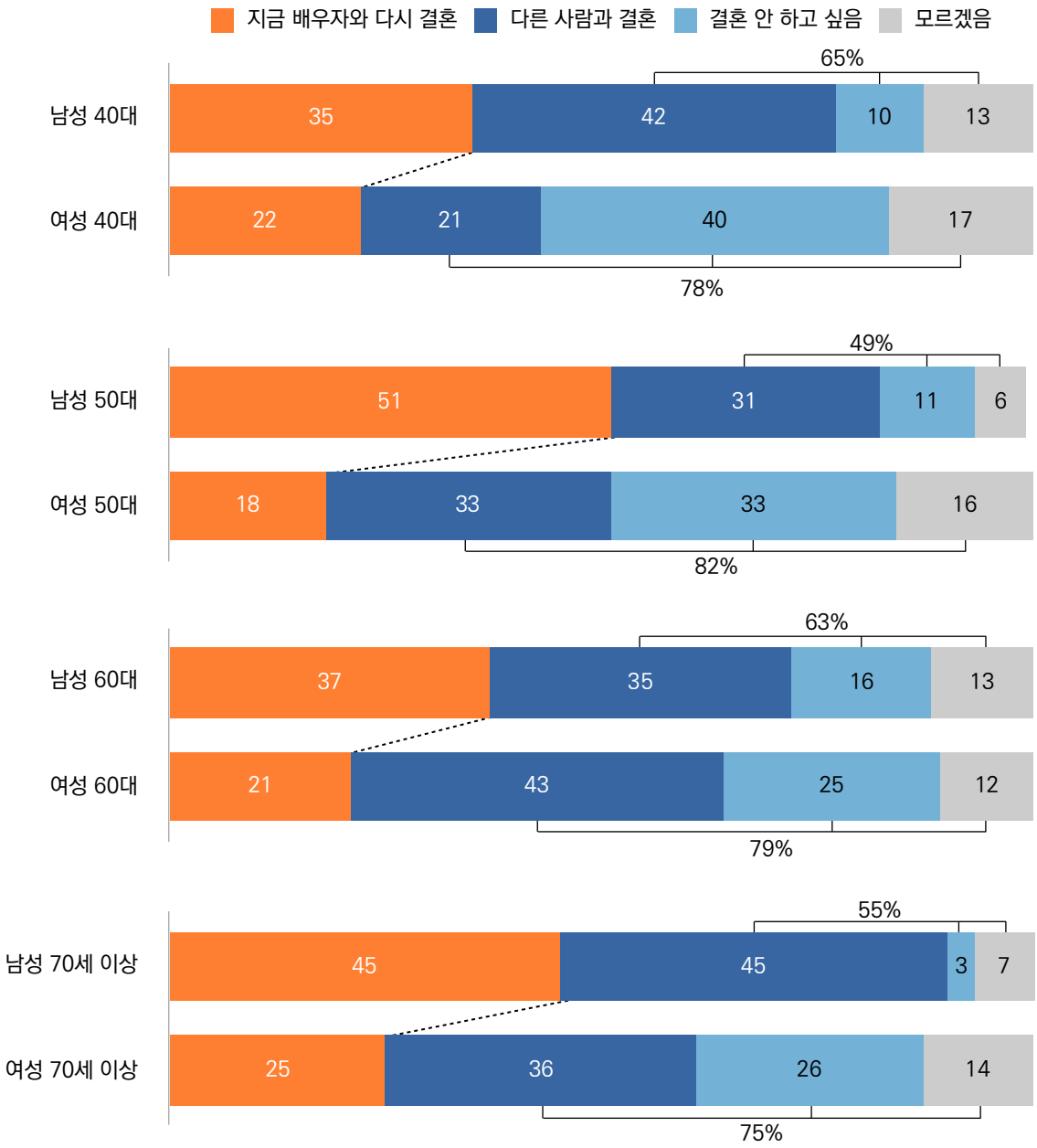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결혼인식조사] 결혼생활 만족도 조사', 2024.05.08.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3.22.~03.25.)

50대 부부, ‘현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 인식 격차 가장 커!

- 성·연령별로 ‘다시 태어난다면, 현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동의한 비율을 살펴보자. 2030세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50대 부부의 경우 ‘현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에 대한 인식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점이 주목된다.

[그림] 다시 태어난다면, 현 배우자와 결혼 여부 (기혼자, 성/연령별,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결혼인식조사] 결혼생활 만족도 조사’, 2024.05.08.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3.22.~03.25.)

시사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미국의 상담 전문가 존 그레이 박사가 2만 5천 명의 커플과의 상담을 통해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을 규명한 책으로 남녀 관계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이다. 이 책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남녀가 각기 전혀 다른 언어와 사고방식을 가진 행성에서 왔지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상대가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할 거라고 믿는, 바로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이 이 책의 지적이다. 이번 넘버즈에서 다룬 부부싸움 조사 결과는 이러한 남녀의 서로 다른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흥미롭고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다.

먼저 2030 기혼자 10명 중 9명(91%)이 부부싸움의 경험이 있었고, 3명 중 2명(65%)은 한 달에 1번 싸운다고 응답했다. 부부싸움의 이유로는 '일상 속 습관 차이', '성격 차이', '말투 차이'가 모두 합해 52%로 서로의 '차이', 즉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갈등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로 인한 결과인지 몰라도 2030 기혼자 3명 중 2명(65%)은 권태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권태기의 주요 원인도 역시 '좁혀지지 않은 성격 차이(31%)'가 가장 많았다.

특히 남녀 간의 결혼 생활 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부부 만족도에서 나이가 들수록 남편들은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여성은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60대 이상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상대방에 대한 만족도가 30%p 이상 크게 벌어졌다. 또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의 응답은 남성의 42%가 선택한 반면, 여성은 24%에 불과했다. 기혼 여성 4명 중 3명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를 거부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부부간의 갈등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경은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부정하기보다는 어떻게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구절이 있다. 모두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상대방을 향한 태도와 마음이다. 즉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한다. 서로 '다름'에 의해 갈등이 발생할지라도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때 갈등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부부가 갈등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부부싸움할 때 서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그냥 말을 말자'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의 주장을 관철하려다 보니 다툼이 반복되고 결국 대화까지 단절되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다툼과 갈등의 축적에서 오는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부간의 진솔한 대화'가 가장 많이 꼽혔듯이, 대화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실제적인 방안을 한가지 들면 '부부 소그룹'이다. 부부 소그룹은 부부관계를 되돌아보고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권태기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부부 사이가 좋은 지인(33%)'이 가장 많이 꼽힌 것이 이를 증명한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비슷한 연령대와 환경을 가진 부부 소그룹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고 말씀 안에서 치유됨으로 인해 부부관계의 회복이 이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할 정도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정의 시작이 부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부의 날이야말로 가장 가정의 달에 적합한 날이다. 비혼주의, 저출산 등 가족 해체가 진행되는 이 시대에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사랑과 회복이 있는 가정의 달이 되길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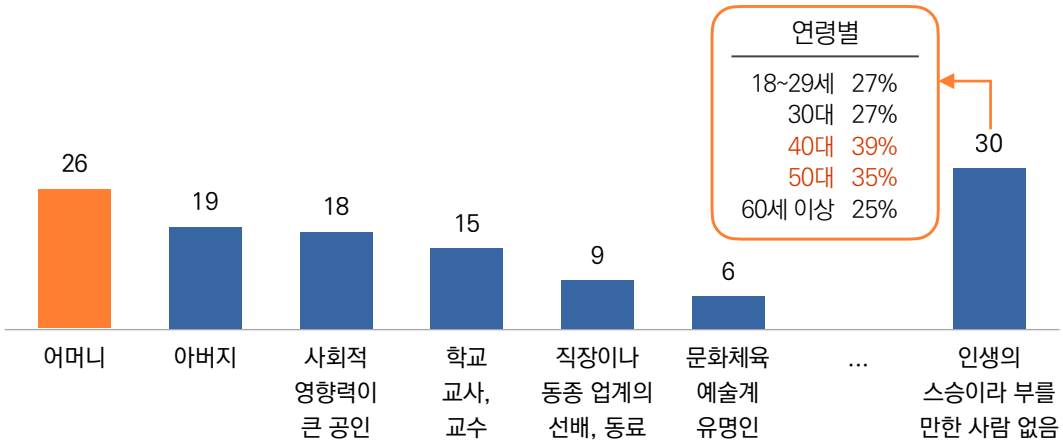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스승의 날 관련 국민 인식
2. 세계 종교 인구 예측

[스승의 날 관련 국민 인식]
내 인생의 스승, '교사·교수'보다 '부모님'!

- 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인생의 스승이자 롤모델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 중 하나인데 과연 내 인생의 스승이라고 부를 사람이 존재할까? 우리 국민에게 '인생의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한국리서치), '어머니'가 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버지' 19%,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 18% 등의 순이었다. '교사', '교수'보다 '부모님'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 전체 응답자의 30%는 '인생의 스승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없음'을 선택했는데, 연령별로는 40~50대가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내 인생의 스승(롤모델) (일반 국민,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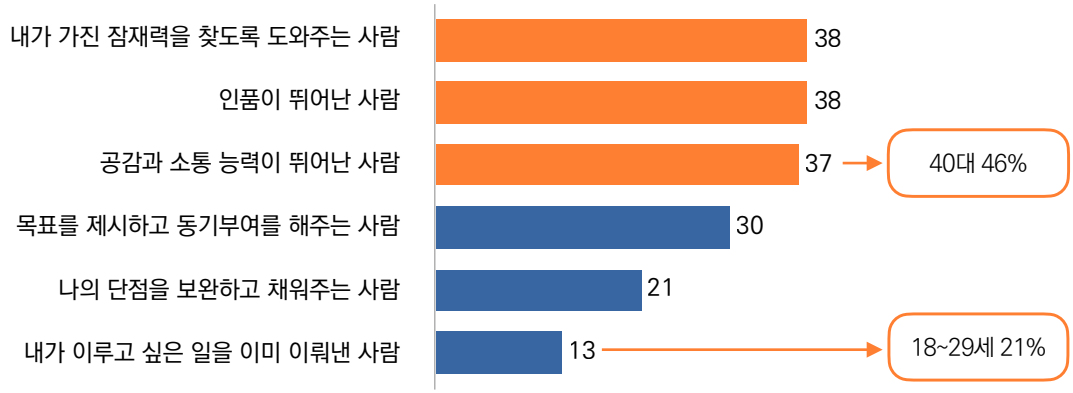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별난리서치] 인생의 스승을 찾아서', 2020.05.13.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0.05.08.~05.11.)

스승의 조건, 나의 잠재력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

- 그렇다면 '스승'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가진 잠재력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38%), '인품이 뛰어난 사람'(38%)과 '공감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37%)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꼽혔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나 개인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헬퍼이자 코치, 훌륭한 인품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 40대의 경우 '공감과 소통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스승의 조건으로 응답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46%)에 달한 반면, 20대는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이미 이뤄낸 사람'을 상대적으로 높게 꼽았다.

[그림] 스승(롤모델)이 갖추어야 할 조건 (일반 국민, 중복응답,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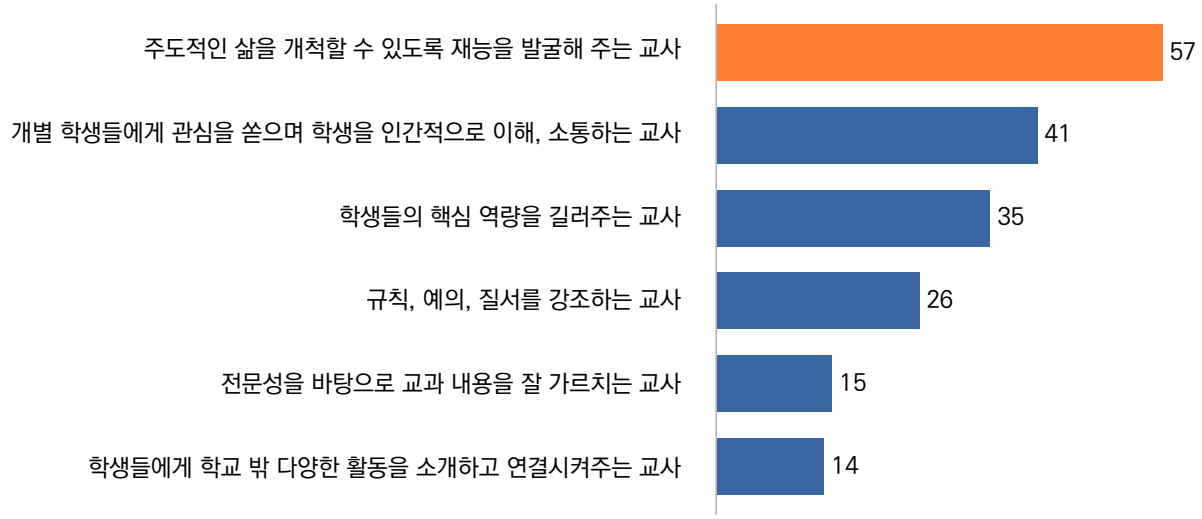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별난리서치] 인생의 스승을 찾아서', 2020.05.13.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0.05.08.~05.11.)

미래의 교사상, '주도적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해 주는 교사'!

-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각 교회마다 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교사상에 대한 일반 국민 조사 결과가 있어 소개한다.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사의 모습은 어떠할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도적인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해 주는 교사'가 5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개별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학생을 인간적으로 이해, 소통하는 교사'(41%)가 꼽혔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개별 학생들과 소통하는 인간적인 교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과 내용을 잘 가르치는 교사'(1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시대의 교사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사상 (일반 국민, 1+2순위,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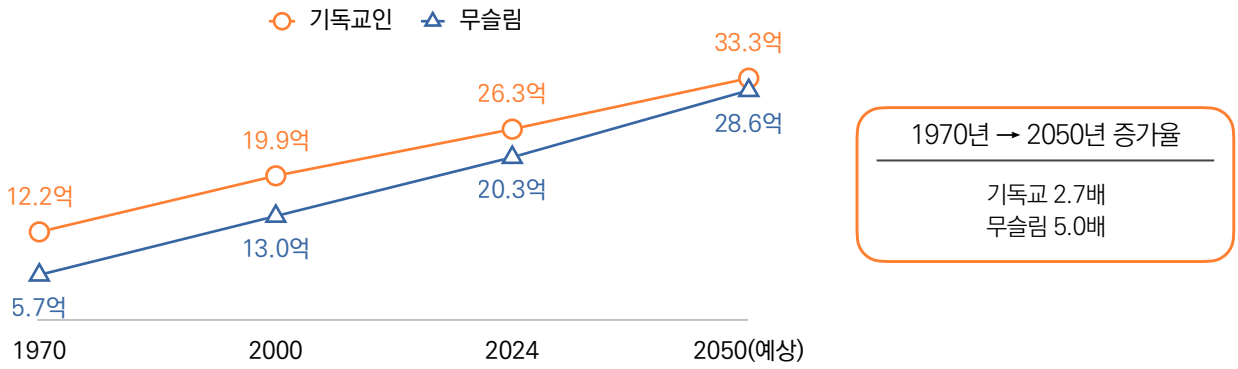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2024.04.07.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온라인 조사, 2024.02.12.~02.26.)

[세계 종교 인구 예측]
세계 무슬림 종교 인구 증가율, 기독교보다 훨씬 높아!

- 세계 기독교의 미래는 어떠할까? 미국 고든콘웰신학대학원 세계기독교연구센터에서 과거부터 미래의 기독교 인구를 예측한 자료가 있어 이를 통해 살펴본다.
- 1970년대 12억 명대였던 기독교인은 2024년 현재 26억 명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50년엔 33억 명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 한편 무슬림의 증가세는 기독교인보다 더 높은데, 1970년 5억 7천만 명 수준에서 2000년도 13억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후 2024년에는 20억 명을 넘어섰으며 2050년에는 28억 6천만 명으로 1970년 대비 무려 5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세계 종교 인구 변화 추이 (명)



※출처 : 고든콘웰신학대학원 세계기독교연구센터, 'Status of Global Christianity, 2024, in the Context of 1900~2050' 자료 참조
*미국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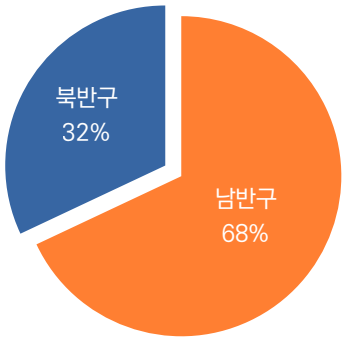
아프리카 기독교 인구, 1970년 1억 명 → 2050년 13억 명!

- 이번에는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5개 대륙의 기독교인 수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아시아는 1970년 1억 명에서 2000년대 2억 8천만 명 수준으로 급증했고, 2024년 4억 2천만 명, 2050년에는 5억 9천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아프리카는 1970년 1억 4천만 명 수준에서 2050년은 13억 명 가깝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대륙 중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반면 미국이 속한 북아메리카는 정체, 유럽은 쇠락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 2024년 기준 기독교인의 분포는 북반구 32%, 남반구 68%로 기독교인 3명 중 2명 이상이 남반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대륙별 기독교 인구 분포 및 변화 추이* (억 명)

	1970	2000	2024	2050 (예상)	증가율 (1970~2050)
아프리카	1.4	3.8	7.3	12.9	821%
남아메리카	2.7	4.8	6.2	6.8	152%
유럽	4.9	5.6	5.6	4.9	0%
아시아	1.0	2.8	4.2	5.9	490%
북아메리카	2.2	2.5	2.7	2.6	18%

[그림] 남/북반구별 기독교 인구 비율 (2024년 기준)



※출처 : 고든콘웰신학대학원 세계기독교연구센터, 'Status of Global Christianity, 2024, in the Context of 1900~2050' 자료 참조
*오세아니아 대륙 제외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83호(2024년 5월 2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분야별 정책 평가, 채 상병 사건 특검 등

사회 일반

25~39세 부부 4분의 1은 '무자녀'... 서울은 절반 육박
조선일보_2024.5.13.

부자들 가정에 더 충실…현금 10억 자산가 40% "매일 가족과 식사"
중앙일보_2024.4.30.

"오래 살면 어떡해"…10억 모은 남자가 걱정하는 까닭
중앙일보_2024.5.10.

월 700만 원 벌어도 "나는 중산층"…인식 괴리 생기는 이유
SBS_2024.5.10.

서울시민 진보·보수 '양극화'…중도 대폭 줄었다
한겨레_2024.5.9.

"효도 콘서트 티켓 선물 1위는 임영웅, 2위 나훈아"
연합뉴스_2024.5.8.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평균수급액,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아
연합뉴스_2024.5.7.

노년층 안전사고 한해 26만건…100세 이상 27.5% 증가
연합뉴스_2024.5.7.

13층서 떨어지는 충격…'치사율 3배'인데 안전띠 착용률 뚝
중앙일보_2024.5.5.

2024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5.5.

"다시 태어나도 교사" 19.7%뿐, 역대 최저
조선일보_2024.5.14.

아동 • 청소년 • 청년

'학교 밖 청소년' 점점 어려진다…83% "검정고시 준비"
연합뉴스_2024.5.9.

"중고생 72%, 중국 직구쇼핑몰 이용 경험…이유는 싼 가격"
연합뉴스_2024.5.9.

소아·청소년 16% "정신장애 진단받은 적 있다"
국민일보_2024.5.3.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韓… 빚 규모 줄었지만 여전히 1위
국민일보_2024.5.10.

고령인력 고용한 식품기업들 "20~30대보다 생산성 낮지 않아"
연합뉴스_2024.5.8.

근로자 60% 가족돌봄휴가 '그림의 떡'…"실효성 확보해야"
연합뉴스_2024.5.12.

국제 • 환경

日실질임금 역대최장 24개월 연속 감소…명목임금이 물가 못미쳐
연합뉴스_2024.5.9.

美서도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 난항…"이대로면 10년 뒤 사회보장 기금 고갈"
동아일보_2024.5.8.

일본 도요타, 60살에 퇴직한 직원 70살까지 고용한다
한겨레_2024.5.8.

건강

한국인 심혈관질환 유전·환경 영향 확인했다…발병 위험 5배로 늘어
조선비즈_2024.5.9.

중금속이 아이들 키·비만에도 영향… "먼지 청소 중요"
국민일보_2024.5.8.

차별받으면 빨리 늙는다…"차별 경험, 생물학적 노화 촉진"
연합뉴스_2024.5.10.

기독교 • 종교

봉사자 '가뭄'… 중직자 기피 심화… 교회 "어쩌나"
더미션(국민일보)_2024.5.9.

'어머니, 신앙 성장 영향' 옛말… 30년새 예배·목사로 바뀌었다
더미션(국민일보)_2024.5.13.

[오늘, 신앙과 문화] 직업 귀천이 '강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럼에도…
더미션(국민일보)_2024.5.4.

"2030년 이후 담임목사 청빙 빨간불, 총회·노회·학교 대책 마련 시점"
기독신문_2024.4.1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기획기사 : [부의 고령화], 중앙일보

노인자산 80%도, 청년빚 80%도 부동산…쓸 돈이 없다 _2024.5.13.

어르신 자산이 40% 육박...대한민국의 富가 늙어간다 _2024.5.13.

"노노상속 깨야 富가 젊어진다" 일본의 해법은 손주 증여세 감면 _2024.5.13.

기획기사 : [청년고립24시], 아시아경제

〈1〉아시아경제가 만난 고립·은둔 청년들

①"1인분 역할 못하는 존재"…나는 28세 고립청년입니다 _2024.5.4.

②온종일 한마디 안한채 보낸 하루…취업이 만든 고립 _2024.5.4.

③육아보다 힘든 게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것…그렇게 우울증이 왔다 _2024.5.4.

④3년간 햇반·라면 먹고 종일 게임만…불안 심해지면 결국엔 _2024.5.4.

〈2〉2024 고립 인식조사

①10명 중 6명 "외롭다"…관계단절·박탈감 호소 _2024.5.5.

②"소문날까봐 말도 못 해"…직장인 절반, 회사 다니고 고립감 심해졌다 _2024.5.5.

〈3〉곁에서 바라본 고립·은둔 청년들

①'코로나 학번'이 위험하다...올해 빗발친 상담전화 _2024.5.6.

②고립의 끝에 남겨진 흔적들…"엄마·아빠 보고 싶다, 미안하다" _2024.5.6.

〈4〉고립의 이유와 사회적 비용

① 취업 안돼 친구도 없어…손에 쥔 건 스마트폰뿐 _2024.5.11.

②경제 손실 11조원 이상 추정 _2024.5.11.

〈5〉한국 정책 3無의 한계

①컨트롤타워 없고 지자체 조례만 213개 '중구난방' _2024.5.12.

②54만 고립·은둔 청년을 32명으로 해결?…예산·인력·연구 태부족 _2024.5.12.

③일본 따라하기의 씁쓸한 결말…한국형 정책 호소하는 청년들 _2024.5.12.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벧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에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재)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지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3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PayPal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챤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